자연에서 심신 치유… 남원 생태교육장 '치유관광지'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도내 10개 업체 선정
시설지원금·컨설팅·여행사 연계 상품 개발 등 지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몸과 마음을 치유받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치유관광지로 거듭난다.

남원시 운봉읍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이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23 전북 치유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내 치유관광지로 선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27개 업체가 신청, 최종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은 지난 2014년도 21만 545㎡ 면적에 67억원 사업비로 조성된 솔내음길과 음이온길, 조릿대길, 내나무터, 전망대 데크, 비채움 계곡, 명상실, 트리하우스(8개동), 힐링캠핑장(6개면) 등 지리산의 풍부한 산림자원 공간이 마련돼 있다.

또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일반인, 직장인, 장애인, 노년기, 청소년기에 따라 대상별로 진행하는 일반형 프로그램과 숲속 트리하우스와 캠핑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프로그램으로 산림자원, 경관, 소리 등을 활용, 숲해설, 자연명상, 오감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일부 시설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 여행사 연계 상품 개발·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 지리산에 위치한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에서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며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치유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찾은 탐방객들이 숲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남원시 제공〉

고창 상하농원서 물놀이 즐기고 할인 받고

'방문의 해' 이벤트…식당·수영장 이용료 중 일부 환급

'농촌형 테마공원'인 전북 고창 상하농원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수영장 개장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상하농원은 개장 전 시설보강을 거쳐 기존과 다른 모자이크 타일공법으로 리뉴얼돼 더욱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된 농원 내 파머스빌리지 수영장을 오는 24일부터 9월3일까지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파머스빌리지 수영장에서는 달팽이 모형의 독특한 유아풀의 미끄럼틀과 적절한 온도의 풀이 운영돼 가족들과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길이 50m 폭 24m의 넓은 대형 풀과 상하농원 공방 레시피가 담긴 스낵바, 프라이빗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독립형 카바나가 겸비돼 휴식을 즐기기에도 적격이다.

수영장 개장과 함께 상하농원에서는 당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페이백' 이벤트로 상하키친&농원식당 이용료와 파머시빌리지 수영장 입장료에서 3만원까지 1만원당 10%의 금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여기에 고창 농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교육과 관광지를 소재로 한 퀴즈미션 등을 통해 고창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고창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며 "상하농원과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연동하는 배너를 개설하고 플래카드와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지역 경쟁력 강화' 고창군-한국생산성본부 협력

컨설팅·교육·연구조사 지원

고창군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고창군과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15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창의적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연구사업 추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서비스 선진화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각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내 산업교육 기관으로 ESG, 디지털전환 등의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 왔다"며 "고창군의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생산성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15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창군 제공〉

남원 대강·이백면 2개 마을 정비사업

4년간 33억 투입 생활 개선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강면 강석마을과 이백면 계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33억원을 투입, 대강면과 이백면의 2개 마을이 대상인 정비사업이 실시된다.

시는 사업을 통해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옹벽 설치 등을 추진, 마을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공동체 활성화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대강면 강석마을은 주택 51가구 79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30년 이상의 주택이 23가구에 이른다.

주택 61가구, 거주인 86명, 노후주택 44호인 이백면 계산마을에도 17억원이 투입된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총 6번의 같은 공모에 응모 관내 8개 마을이 선정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준비한 지역활력타운과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이어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선정돼 기쁘게 생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 예비 농업인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정읍시가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습교육장에서 예비 귀농·귀촌인 3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이용 교육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는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유용하지만 부주의나 작동미숙, 음주 운행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안전교육과 작동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기술센터는 사용이 많은 관리기, 농용굴착기 등의 사고사례에 대한 안전교육과 조작 방법에 대한 실습 위주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 절차와 농업기계 자가 정비 및 장기 보관 요령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 물품을 활용한 안전표지 스티커 부착과 등화 장치 사용을 계도할 방침이다.

전정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업기계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안전한 농기계 사용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